



떡지순례 열풍에
디지털 신제품
쏟아진다
L1



Life

프리미엄 펫푸드
유산균·신선육 등
제품 차별화
L2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AX(인공지능 전환) × 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 · 모빌리티

2026년 9월 16일(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최 : metro® · metro®경제

친환경에 자율주행까지... 똑똑한 상용차, 물류 구조 바꾼다

친환경 상용차, 운송효율화로 확대
현대차, 수소 상용차 미래동력으로
만트릭·볼보 등 자율주행기술 결합
무배출·무인 물류시스템 구축 가속

친환경 상용차 시장의 경쟁 축이 전기·수소 등 동력원의 전환에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운송 효율화로 확대되고 있다.

상용차는 승용차보다 운행거리와 가동률이 높은만큼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될 경우 연료비뿐 아니라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까지 낮출 수 있어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성장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와 함께 수소전기 상용차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현대차의 대표 차종인 엑시언트 수소전 기트럭은 유럽 5개국에서 165대가 운행되며 올해 1월 기준, 누적 주행거리 2000만

km를 기록했다. 북미에서도 2023년 이후 63대가 160만km 이상을 주행했다.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 친환경 물류 구축 사업인 '카이로스 프로젝트'에 엑시언트 수소 전기트럭 8대를 공급했다.

중동에서는 수소버스를 앞세웠다. 현대차는 이달 초 오만 교통통신정보기술부, 에너지 유통사 옴코와 친환경 모빌리티 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무스카트 대중교통 노선에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기아는 전기 목적기반차량(PBV)을 중심으로 배송·서플 등 다양한 사업 목적에 대응하는 맞춤형 상용차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과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해 P·BV·상용차 영역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포트투닷을 중심으로 실도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양산 적용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 상용차 업체 만트릭버스그룹은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친환경 물류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히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운송 효율과 경제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전략이다.

볼보트럭은 전기트럭의 장거리 운송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대형 전기트럭의 주행거리를 끌어올리는 한편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를 병행하는 멀티 에너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볼보트럭은 현재 최대 700km 주행이 가능한 80톤급 차세대 대형 전기트럭을 공개했으며 2040년에는 판매 차량을 대상으로 사실상 전면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같은 변화는 향후 전기트럭에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 운전자 부족과 운송비 상승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무배출·무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친환경 상용차 시장의 경쟁축이 차량 성능을 넘어 충전·데이터·자율주행을 아우르는 종합 물류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14:00~14:10	축사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중소기업 읍부즈만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14:10~14:40	기조강연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 : 미래모빌리티 G3 혁신전략
14:40~15:10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 : 변화, 혁신, 그리고 물류
15:10~15:40	강연	감병우 대동그룹 개발부문장 전무 : 농업모빌리티의 AX 및 GX 현황
15:40~16:10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 New Commerce에 대응하는 물류
16:10~16:40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 : 자율주행이 바꿀 한국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 -부산항 수출화물에서 미국 대륙횡단 왕복 노선까지-

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로 대형트럭의 군집주행이 현실화 될 경우 교통사고와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업계에서는 향후 상용차 시장이 단순히 차량 판매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차량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릿관리시스템(FMS), 충전 인프라,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해 고객의 총소유비용(TCO)을 얼마나 낮추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



하성용 중부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공학 전공 교수는 '미래모빌리티 G3 혁신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강연에서 하 교수는 기술개발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하고 검증하고 업데이트하고 확산하는 국가 시스템'의 속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승부를 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하 교수는 국가의 미래 모빌리티 혁신전략의 최종 목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이동을 보장하고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통해 계속 진화하는 국가가 돼야한다고 강조한다.

하 교수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 국무총리 직속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시험지구 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



박민영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물류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화, 혁신 그리고 물류'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다.

박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로봇, 자율주행기술과의 융복합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로지스틱스(Logistics) 4.0'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엔 물류 기업이 운송과 보관 위주의 단순 기능을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더욱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공급망관리(SCM)가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하대 물류AX실증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 교수는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회장,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물류정책분과 위원 등도 맡고 있다.

감병우 대동 개발부문장 겸 전무



감병우 (주)대동 개발부문장 겸 전무는 '농업모빌리티의 AX/GX 추진 현황'에 대해 강연을 한다.

국내 1위 농기계 제조기업인 대동은 '미래농업 리딩 기업'이라는 비전에 따라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 모빌리티 로보틱스, 스마트팜 등의 사업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트랙터 전동화 모델 출시 등으로 친환경 농기계 시장을 주도하고 'FUTURE VISION 2030'을 통해 농업 분야에 피지컬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책임지겠다는 포부다. '농업 피지컬 AI로 글로벌 농업의 AX를 선도하겠다'는 선언도 했다. 'AI 트랙터' 개발 등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감 전무는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를 거쳐 대동에서 개발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는 'New Commerce에 대응하는 물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박 대표는 커머스(Commerce) 시장이 오프라인 매장→자사몰·온라인→통합 플랫폼→브랜드 직판매→SNS·라이브커머스→국가 간 직접 거래→AI를 활용한 에이전트 기반 구매로 넘어오면서 7단계 진화가 끝났다고 분석했다.

소비자가 편해질 수록 그 뒤의 물류는 곱셈 구조로 복잡해지고 있다. 이젠 AI가 예측하고 사람이 판단하며 시스템이 실행되는 구조다. 물류에서 GX(녹색전환)는 별다른 것이 아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크기로,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면 된다. 이것이 물류의 지속가능성이다. 박 대표는 2017년 아워박스를 창업해 온-디맨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는 '자율주행이 바꿀 한국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부산항 수출화물에서 미국 대륙횡단 왕복 노선까지'를 주제로

강연한다. '마스오토(Mars Auto)'는 자율주행 트럭용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해 공급하는 스타트업이다. 대형트럭 실주행 데이터만 세계에서 가장 긴 2000만km를 확보했다. 한국에서도 가장 긴 250km의 누적 자율주행거리 기록을 갖고 있다.

충남 아산에서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마스오토의 프로그램이 깔린 40피트 자율주행 트레일러로 부산항까지 운반했고, 부품을 선박에 실은 뒤 미국 롱비치항에선 53피트 트레일러 자율주행으로 앨라배마·조지아주에 있는 모달공장까지 운반하기도 했다.

메트로 한줄뉴스



▲'최대어' 하현승, '10억원' 한기주 넘고 KBO 신인 최고액 짝꿍까 /사진 뉴시스
▲김시우, 내달 제네시스 챔피언십 출전 확정...임성재와 우승 경쟁

▲탁구 신유빈, 출국 전 장애인 대표팀에 깜짝선물 전달
▲'스노보드 올림픽 금메달' 최가온, 19일 스노리그 월드컵 챌린지 참가

▲'통산 140홀드' 롯데 김태혁, 현역 은퇴...“팬들 관심 잊지 않고 보답할 것”
▲아시안게임 개최국 일본, 최다 919명 출전...난민팀 2명 최소